



[낙농경영] 호주, 고온 스트레스 관리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 지방 보충제 또는 베타인 성분을 배합해 고온 스트레스 경감 효과 분석



여름철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가 젖소의 건강은 물론, 원유 생산과 성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DA), 빅토리아주 농업부와 낙농재단은 공동으로 낙농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초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젖소의 식단에 지방 보충제를 첨가할 경우 고온 스트레스가 원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고, 베타인(Betaine) 성분을 사료에 배합해 섭취시켰을 때 젖소의 체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며 원유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젖소의 사료 섭취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사료 성분을 파악해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현재 연구팀은 초기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을 위해 현장연구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farmonline.com.au, 1월 24일 >

[산업동향] 英 낙농업계, 필수 인력 유지 위해 통행권 발급

-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봉쇄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낙농업계가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해 통행권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 영국 경찰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위반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영국낙농가협회(RABDF)는 ‘해당 근로자는 식품산업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 봉쇄기간동안 이동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행권을 만들어 배포하고 낙농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이를 필히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1월 22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